

응급 조치(II)

이 경 진

한국부제병연구소장

분만시 출혈에 대한 응급조치

분만시 태아의 과대 혹은 태위의 비정상 혹은 분만 견인 방향 잘못으로 인하여 산도의 혈관이 파열되어 과도한 출혈로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한다.

만일 분만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축주는 반드시 산도에 손을 넣어 출혈 혹은 질파열을 검사하여야 한다. 질파열시에는 전문수의사의 왕진을 의뢰하여야만 한다. 만일 과도한 질파열을 방지하게되면 복막염, 질탈, 기질(질내에 공기가 잔류하는 것), 변식장애 등을 유발하므로 반드시 봉합해 주는 것이 좋다.

혈관 파열로 인한 출혈을 감지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내진할 때 팔 혹은 손바닥에 선혈이 묻어나오거나 펌프로 쏘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혈관 파열을 의심하여야 하며, 동맥이 파열되었을 때에는 손바닥에 피를 받아보면 쉽게 혈액이 응고되며, 선홍색을 나타낸다.

출혈 시간이 길어지면 양수와 함께 외부로 출혈된 혈액 덩어리를 배출하므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정상적인 분만으로 인한 혈액 덩어리는 검붉은 형색을 하나 출혈로 인한 혈액 덩어리는 선홍색을 나타내므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 때의 응급 조치는 내진하여 출혈 부위를 압박하거나 혈관의 끝을 찾을 수 있다면 실로 일단 묶어서 출혈을 멈추게 한 다음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한다.

출혈된 혈액 덩어리는 가능한 한 버리지 않음으로서 출혈량을 측정하여 수혈량을 결정하거나 예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출혈된 혈액 덩어리는 잘 보관하는 것이 현명하다.

분만 후 출혈로 인하여 빈혈이 심하고 호흡수가 빨라지거나 입을 벌리고 호흡한다면 예후가 불량한 것이므로 생리식염수를 혈관 주사하여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즉시 수혈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급성 고창증의 응급 조치

고창증에는 포말성(제 1위내에 거품이 차는 것) 고창증과 위내에 어떤 원인에 의한 가스가 차는 것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가스가 차는 고창증이 대부분이다.

고창증이 심할 경우에 축산 농가에서는 투관침을 사용하여 가스를 뺀다. 이는 소에게 스트레스 및 창상, 그리고 투관침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위내용물이 복강을 오염시켜 복막염을 유발시키거나 투관 부위의 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어차피 필요없는 가스라면 투관침으로 가스를 제거하지 말고 호스를 이용하여 빼내어 보자.

우선 손가락굵기의 수도 호스를 3m쯤 준비한 다음 한쪽끝을 불에 태운 다음 찬물에 식혀 호스가 날

카로워 식도에 호스를 삽입할 때 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가스가 충만한 소는 저항이 심하지 않으므로 입을 벌린 후 식도로 호스를 삽입한다. 이 때 호스가 기도로 삽입되면 기침을 심하게 하므로 호스를 다시 빼내어 천천히 삽입한다. 아무 저항이 없이 80cm 이상 호스가 삽입되면 위로 정확히 삽입된 것이다. 정확히 삽입되면 위속에 있던 가스가 급속도로 호스를 통해 체외로 배출된다.

이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위내의 가스를 일시에 배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는 가스에 충만한 제 1위가 뒷다리로 혈액을 공급하는 후대동맥이라는 큰 혈관을 압박하여 소의 앞부분에 혈액이 많이 몰려 있다가 가스가 빠지면서 일시적인 뇌빈혈을 일으켜 급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몇 번에 나누어 호스끝을 막아주어 일시적인 뇌빈혈을 예방하여야 한다.

가스 배제가 끝난 경우에는 호스를 통하여 약물을 투여하는 것도 현명하다. 자석을 먹일 때도 이와 같이 호스를 이용하여 투여하면 안전하게 먹일 수 있다. 자석을 투여했다고 축주는 안심하지만 되새김질 혹은 깊이 자석을 목안으로 넣지 않으면 다시 뱉는 경우도 있으므로 호스를 이용하여 식도 깊숙히 투여해주는 것이 좋다.

송아지 설사의 응급 조치

세균 혹은 바이러스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하여 설사를 일으킨다. 설사를 포유기에 한번만하면 착유우에서는 평생 유량이 3,000kg이 감소한다(평균7산)는 문헌을 본적도 있다. 이 때에 설사로 인한 손상을 줄일 수만 있다면 3,000kg의 우유를 소 한 마리로부터 벌 수 있다는 결론이다.

송아지는 하루만 설사를 하여도 생명이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낙농가에서는 소홀히 넘어가기 쉬우며 영양제를 투여한다고 해서 5% 포도당을 주사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하지만 설사를 할 때

송아지는 하루만 설사를 하여도 생명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낙농가에서는 소홀히 넘어가기 쉬우며 영양제를 투여한다고 해서 5% 포도당을 주사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하지만 설사를 할 때 5% 포도당을 주사하는 것은 설사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킴과 동시에 체내에 있는 액체성분의 변화를 더욱 가속시켜 설사를 더한 것과 똑같은 상황을 일으키므로 절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포도당을 주사하는 것은 설사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킴과 동시에 체내에 있는 액체성분의 변화를 더욱 가속시켜 설사를 더한 것과 똑같은 상황을 일으키므로 절대로 주의하여야 한다.

설사를 할 때에는 송아지의 탈수 정도에 따라서 "하트만"액 혹은 생리식염수를 혈관 혹은 피하로 주사하여야 하며 설사가 멈추었다 하더라도 1~2일 정도는 링겔을 더 투여하여 설사로 인한 탈수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급성 유방염의 응급 조치

급성 유방염이 왔을 때는 보통 낙농가에서는 항생제 연고제를 투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치료 방법으로 유방염을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

급성 유방염이 왔을 경우에는 유방 내에 염증을 동반하면서 유방염균이 내뿜는 독소를 체내에 흡수하게 되어 간에도 손상을 일으키게 되며 염증이 열을 동반하여 고열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유방 내에 염증으로 인하여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유방염 연고제는 없다. 그런데 어찌 유방염 연고제만 투여하고 유방염에 걸린 젖소가 식욕을 회복하고 유방염이 완치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자, 응급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자.

낙농가에서는 우선 급성 유방염에 감염되면 단순히 착유 후 유방염 연고제를 먼저 투여하지 말고 소독된 용기에 유방염에 걸린 우유를 샘플로 채취하여 항생

제 감수성 검사를 의뢰한 후 유방염 치료에 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72시간 후면 어느 정도의 항생제에 감수성이 있는지,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

유방염약을 투여하기 전에 완전히 젖을 짜낸 후 유방염약을 투여한다. 하지만 약을 투여하기전에 주사용 증류수를 유두침을 이용하여 유방 내로 투여하여 다시 한번 유방내를 깨끗이 비워 보자. 이렇게 유방염이 걸린 유방을 세척하면 유방내에 있는 우유도 줄일 수 있어서 세균이 우유를 영양분으로 하여 증식하는 기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생제의 효력을 높일 수도 있다.

이러한 유방 세척은 유방염이 걸렸을 경우 자주 해 주는 것이 급성 유방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급성 유방염이 걸렸을 경우 보통 낙농가에서는 하루에 세번 정도 착유 후에 약을 투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세균이 유방내에서 우유를 영양분으로 하여 충분히 증식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가 되므로 최소한 하루에 다섯 번 이상은 완전히 착유해줘야 한다.

대중적인 응급 조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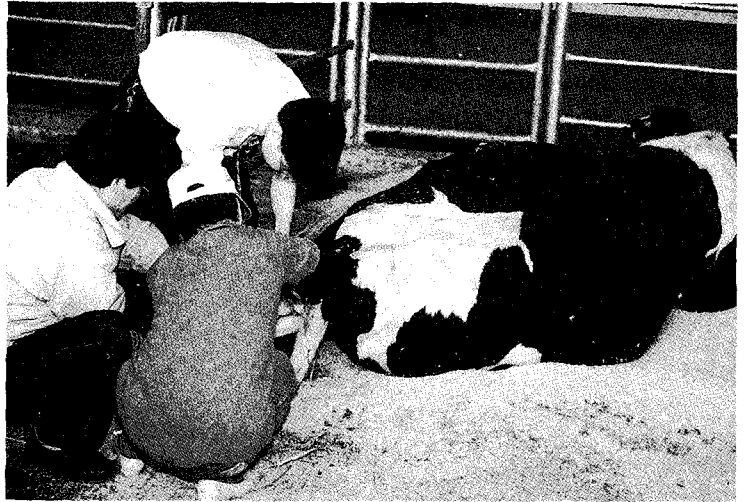
고열이나 상당한 통증을 동반하는 급성 유방염의 응급 조치로는 정상적인 용량의 2~3배의 해열 진통제를 투여하여야 하며 부수적으로 간기능 및 식욕 증진제를 병행 투여하므로써 제 4위 전위증 같은 복합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기립 불능의 응급 조치

유우에서의 기립 불능은 건유기에서의 비만과 관계가 깊으며 유우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기립불능의 원인은 산욕마비이다.

이 질병은 저칼슘혈증과 연관되어 분만 직전 혹은 분만 후 발병된다.

분만 후 과도하게 초유성분의 젖이 새던가 혹은 과도하게 젖이 붙었을 때 체내에서 칼슘 대사 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기립불능, 혼수 상태에 이어 결국 폐사에 이르기도 한다.

응급 조치로는 우선 복합 영양제를 혈관으로 투여한다. 그 이유는 단순한 칼슘과 인 성분만 처방된 수액으로는 산욕마비의 모든 원인을 해소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복합 영양제를 항상 두병이상 동시에 투여되어야 하므로 항상 상비하여 두는 것이 현명하다. 환축이 수액 투여 후 어느 정도의 의식이 돌아오면 콘크리트 축사 바닥에 흙을 뿌려주어 기립할 때 쓰러져서 탈골되거나 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가능한 한 넓은 장소로 옮기는 것이 좋다. 이 때 맨 땅으로 옮길 수 있으면 기립불능에 있어서 일어날 확률은 더욱 더 높아진다.

외부 자극에 대하여 일어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계속 자극을 주어 일으키되, 외부 자극에 대하여 입을 벌리며, 신음을 하면 투여된 약제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므로 2~3시간 후에 다시 외부 자극을 주어 일으켜 본다. 만일 이 때에도 못 일어난다면 깔짚을 충분히 넣어주고 누운 방향을 한 두시간에 한 번씩 좌우로 번갈아 뒤여 욕창을 예방하여야 한다. 만일 24시간 이내에 반응이 없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다음 호에서는 번식 장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㉞)

(필자연락처: 032-544-6771)